

일본정책연구센터 활동 시작 “학우들에게 실질적 도움 줄 것”

우리 학교 일본정책연구소가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정책연구센터는 최근 신설된 과목인 아시아공동체론과 연계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학우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정책연구센터는 한·일 양국이 겪는 ▲경제 ▲문화 ▲복지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위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외교·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른 일본 연구소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개소한 일본정책연구센터는 일본의 원아시아 재단으로부터 연간 5백만엔을 지원받으며 한·일의 정책을 체

계적으로 연구할 기반을 조성했다. 박성빈 일본정책연구센터장은 “한·일 간의 노동 산업, 인구 구조가 20년의 간격을 두고 유사하게 변하고 있다”며 “일본정책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한국 정책 방향성에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일본정책연구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본정책연구센터는 연구내용을 학생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일본연구센터의 주도로 신설된 아시아공동체론은 학우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일본정책연구센터는 연구내용을 활용하여 아시아공동체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센터장은 “교과

수업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연구센터와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학술연구와 학생교육이 호혜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정책연구센터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준비 하고 있으며 학술회의 자료와 앞으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책연구센터는 지난 달 28일 열린 일본정책연구센터 개소기념 학술회의를 통해 공식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의 시대를 모색하며’라는 주제로 양국의 저명한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김한글 기자 petterday@ajou.ac.kr